

公測景臺)는 元代의 것이다.

5. 첨성대의 頂上이 觀測器具를 올려놓기에는 너무 좁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으나, 簡儀 정도 올려 놓고 數名이 관측하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納得되었다. 그러나 頂上이 좁다는 見解는 아마 現代의 天文臺를 腦裏에 두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夜間の 時를 측정하고, 天變이나 氣象變化를 觀測할 정도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6. 신라는 56代의 王位를 이어 가면서 992年間 政權을 잡고 그 서울은 慶州를 벗어난 일이 없었다. 倭寇의 약탈, 高句麗에 대한 견제, 辰韓과 任那의 吸收, 百濟와의 交戰, 三國統一, 天然災害 등 王은 占星術에 기대하는 바가 컸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나라에서 첨성대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타당한 판단이 아닌 듯하다. 現存의 첨성대가 天文觀測所가 아니라면 우리는 慶州市内에서 眞의 첨성대를 찾으려 다녀야 할 것이다.

이에 나는 일단 古典을 믿고 첨성대를 天文氣象觀測을 위한 시설이라고 主張하고 싶다. 너무 推想에 지나쳐 文獻을 떠나서 근거없이 억지 고집을 쓸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瞻星臺 討論 有感

仁川大 機械工学科 金 在 官

瞻星臺가 天文臺냐, 祭壇이나 또는 象徵的 建築物이나의 論爭을 불러 일으킨 3次에 걸친 瞻星臺討論會는 結果적으로 瞻星臺의 神秘性에 대한 關心을 크게 높여 놓았다. 參席한 많은 學者들이 제각기 다른 角度와 專門的 立場에서 各樣多色으로 研究調査한 結果를 놓고 熱띤 討論을 벌인 結果 심지어 史學의 門外漢까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마저 갖게 하였다.

또한 討論零圍氣가 어느 學術會議보다도 活潑했고 熱氣가 감도는 까닭에, 瞻星臺에 關한 學者들의 이 큰 關心과 研究熱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넓고 깊게 擴大시켜 瞻星臺의 眞價를 빛내게 하는 方法은 없을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왜냐하면 瞻星臺만큼 우리나라 사람

들의 文化意識 속에 뿌리박고 있는 影像이 큰 것을 만 어떠한 것에서도 發見할 수 없기 때문에 瞻星臺에 關한 어떠한 結論도 신중에 신중을 期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短時間內에 斷片的으로 이루어진 分散된 研究調査로써 論爭을 繼續하다가 자칫하면 現實(瞻星臺)을 벗어난 討論으로 치닫는 習性的 史例를 되풀이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研究對象이 1300년이 넘는 옛날에 세워졌고, 그것이 또한 世界的으로 드물게 보는 特異한 形態와 이름을 가진 遺物일진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지녔던 正體를 正確히 判定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은 明白하다. 더구나 歷史的 考證資料가 不足하고, 또한 그에 대한 研究調査마저 여지껏 別로 体系的이고도 綜合的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보니 누구나 한가지씩의 새로운 理論을 提起할 수도 있는 素地가 있어 問題는 더욱 複雜해진다.

瞻星臺에 關한 이제까지의 文獻資料에 그의 機能에 關한 仔細한 記錄이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意見이 나올 수 있는 餘地는 많으나, 한가지 確實한 것은 그의 各稱이 「星臺」로 모든 文獻에 一貫되게 記錄되어 있고, 「星壇」 또는 象徵的 構造物로서의 이름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祭天石壇」으로서의 星壇과는 엄연히 區別되고, 「별」과 관계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이 올라서는 「臺」로서만 記錄되었다는 것은 한가지 不變의 歷史的 事實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된다. 오늘의 科學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當時의 時代背景을 감안한다면 星臺가 天文臺의 口實과 아울러 祭天 또는 占星의 儀式場의 役割을 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建築當時의 新羅사람들의 文化도와 智慧로 보아 外國曆法 導入 以前에 그들의 獨創的 能力을發揮하여 天文臺를 만들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기도 생각된다. 한편 瞻星臺가 여러가지의 複合的 機能을 遂行하였다면 現存하는 古代 文獻上에 한번쯤은 別途機能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 아직 發見되지 않은 것 같다.

그간 3次에 걸친 瞻星臺討論會는 瞻星臺에 對해 提起할 수 있는 모든 意見과 問題點을 露出시키는 데 크게 寄與한 것 같다. 이제 앞으

로 할 일은 瞻星臺의 文化財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좀더 充分한 時間과 資金 및 人員을 動員함으로써 이제까지의 研究結果를 体系的으로 綜合하고, 未盡部分의 補完 및 外國 古代天文臺의 比較研究 등을 遂行하고 瞻星臺의 眞髓를 糾明할 「瞻星臺研究 綜合計劃」을 세워 봄이 어떨까 생각된다.

1300年 以上을 忘却 속에 버려 두었던 文化財의 機能에 대하여 現今에 와서 一般의 큰 關心을 불러 일으킨 것은 討論會를 主擧한 韓國科學史學會의 큰 業績이며 參與한 모든 學者들의 功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밝혀진 各樣多色의 모든 意見이 하나 하나 分散된 것으로 흩어져 있을진대 아마 그것들은 모두 求心點 없는 한낱 片見에 머무를 危險이 있다. 이 모든 努力과 論文이 瞻星臺를 根本적으로 解明하기 위한 綜合計劃의 一環으로서, 想像可能한 모든 方法과 史例를 들어 肯定的 또는 否定的의 면에서도 評價分析하는 努力의 一部로서 存在하며, 窮極의 으로는 瞻星臺의 참모습을 빛나게 하는 일의 一部로 昇華될 때, 이제까지의 모든 多角의이며 異色의 意見과 散發的 研究結果도 실에 꿰인 眞珠알과 같이 그들의 寄與度는 빛나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렇게 될진대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學者들의 情熱어린 努力들은 크나큰 文化的 業績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또한 더 많은 새로운 研究結果와 異論이 나올진대 더욱 반겨야 할 좋은 現象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瞻星臺小考

文化財管理局 申 榮 勳

狼山은 徐那伐의 鎮山이다. 狼山은 지금 慶州市 排盤洞에 있는 낮고 자그마한 산이다. 南山이나 仙桃山, 明活山에 비견할 수 없을만큼 소규모의 산이다. 그 산을 왜 主(鎮)山으로 잡았는지도 알 수 없으나 그 이름이 왜 狼山이, 되었는지의 뚜렷한 기록도 없다.

狼山이란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善德女王 때이다. 「三國遺事」(卷 1 善德王知幾三事條)

王이 建康할 때 『내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切利天에 장사지내라』 하였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몰라 물었더니 『狼山 남쪽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처음 狼山이란 이름이 보인다. 文武王이 四天王寺를 狼山 남쪽 기슭에 창건하였다. 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이므로 도리천이 큰 狼山에 있음이 뚜렷하게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文武王때 明朗法師가 文豆婁秘法을 행하려 할 때 『狼山 남쪽에 神遊林이 있으니 거기에 四天王寺를 창건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狼山에 神遊의 성스러운 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도리천에 善德王陵이 자리잡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狼山은 원래 奈歷이라 일컬었다. 「三國史記」(雜志第一祭祀條) 大祀 잡사는 三山の 으뜸으로 좁은 習比部の 奈歷이 큰 이것인데 金庾信이 白石에게 유인되어 갈 때 나타난 三女神, 스스로 奈林, 骨火 穴禮의 護國神이라 칭하던 奈林도 곧 이 奈歷의 別稱이다.

金庾信의 소시적에만도 奈歷이라 부르던 것이 善德女王때에 갑자기 狼山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까닭이 있을 만한 일이다.

狼山の 狼은 狼星이란 의미를 지닌 별자리 이름으로 이해된다. 狼星은 東方의 별자리에서 소속된 별로 井宿를 비롯한 여러 별들과 더불어 자리하고 있다. 狼星이 자리잡고 있는 形容과 狼山の 서라벌 내의 위치가 방불하다는 뜻에서 부여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狼星과 狼山을 견줄에는 표준이 될 만한 것이 있었으리라고 느껴진다.

善德女王이 狼山이라 부르게 된 동기가 별자리와의 견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하는 천문용어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은 女王이 創建한 瞻星臺의 존재로부터 보급되는 빌미를 얻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별자리의 이름의 부여는 星宿에 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着眼된 것인데 狼山の 이름은 이런 배경에서 命名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별의 運行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큰 관심을 두